

윤석열 “심심한 위로의 마음”…민주유공자법 요구에 ‘진담’

대선후보 배은심 여사 조문 행렬

장례위 요구에 조문만 하고 나가
안철수 부인·김동연 후보도 조문
“민주·인권 헌신 잊지 않겠다”
이재명·심상정 9일 빈소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오후 광주 조선평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배은심 여사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조선평원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한열 열사의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의 빈소에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하는 등 이틀째 고인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전날인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빈소를 찾은 여야 대선 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은 이날 고인의 생전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평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후보는 배 여사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예를 갖추 뒤 유족의 손을 잡고 “뉘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윤 후보는 “고인은 이 열사가 돌아가신 뒤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은심 여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당초 윤 후보는 조문객들이 앉아있는 곳에 잠시 머물다 가려 했지만 장례위원회 관계자가 “조문객들이 (화를) 많이 억누르고 있다”며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자 곧장 장례식장을 나섰다.

윤 후보는 빈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례위원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 처리 약속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에 부딪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가 빈소를 찾았다. 김 교수는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함께

빈소를 찾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얼마 전 어머니님과 면담을 진행했었다”면서 “국민의당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약속을 했었고 어머니님이 거기에 희망을 품으셨는데, 그 희망을 꼭 지켜드리고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이날 빈소를 찾아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배은심 여사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면서 “두 분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뜻을 받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고통 속에 사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제 이 세상은 우리들께 맡기고 편안하게 영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배 여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이 보는 것 같다고 반가워하셨다”면서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을 때만 해도 긍정하셨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는 배 여사가 지난 3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입원을 했을 당시 병문안을 하려다 “아직 무리”라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일부 민주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관계자는 이 후보에게 고인이 생전 염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즉답을 피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전날 빈소를 찾아 “어머니가 온몸으로 실현하려 했던 민주주의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께 이 법의 핵심이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대입 공정성위 설치 수시전형 모니터링

교육 분야 8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위는 우선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 수시전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대입 공정성 강화’ 공약을 내놨다.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돌봄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이면 모두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동시 하교제’와 초등학

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플랫폼 ‘K-Eduverse’ 구축(디지털 전환 교육)하고,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교육여건 개선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육대전환위는 또 아이들이 지역에서 역사, 지리, 노동, 인권, 환경 등을 배울 수 있는 지역학습일(일명 ‘행복한 지요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역 혁신 대학들이 교수·연구인력·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대학평가제도를 효율화하며,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해 평생학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교육대전환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박찬대·권인숙·서동용·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금호타이어 부지 아파트 위주 개발 절대 안돼”

“무등산 접근성 논의는

모든 방안 내놓고 민주적 결정”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출입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공장 이전 후 남은 부지는 송정역과 맞물려 교통과 물류 허브, 상업·업무·주거 융복합지역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아파트나 주상복합 위주의 개발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공장용지인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업자측과)

협이나 논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측은 최근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납부하고 전남 합평 이전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이날 무등산 접근성 향상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모든 방안을 내놓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연말 출범한 광주대전환 특별위원회에서 무등산과 관련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특별위에서 결정해 건의하면 (시에서) 또 한 단계 검토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대전환 특별위는 광주에서 제시한 ‘그린 스마트 펀(Green Smart Fun) 시티’ 구상의 밑그

림을 그려갈 조직으로 그린, 스마트, 펀 분야별로 3개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시장은 “무등산 접근성은 3개 분야가 모두 결합된 문제”라며 “광주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환경 파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다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각자 철학에 따라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논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걸맞게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1부터 정당 활동...가입 연령 만 16세로

정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